

# 산업보건 주요뉴스



## 안전문화 정착으로 군 장병 안전 책임진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과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장준규)은 5월 30일 충남 계룡시 소재 육군본부에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육군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군내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장병 안전 확보, 시스템을 통한 조직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추진된다.

공단은 이번 협약에 따라 육군에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전문교관 양성 △교육자료 △군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 군 장병 안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 물, 그늘, 휴식! 여름철 건강 일터의 기본 요건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옥외작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열사병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옥외작업 열사병 예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수칙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 가이드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이행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휴식은 1시간을 주기로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도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이행가이드를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배포하는 한편, 라디오·전광판·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에는 열사병뿐만 아니라 더위로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에도 소홀할 수 있고, 집중력 저하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 “물, 그늘, 휴식은 여름철 안전보건관리의 기초”임을 강조하고 사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재 취약 건설현장 집중 감독

### 고용노동부, 6월 5일(월)부터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취약요인에 대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6. 5(월) ~ 6. 23(금) 기간 동안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장마철은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실 및 무너짐, 전기 기계·기구에 의한 감전, 밀폐공간 작업에 의한 질식 재해, 태풍 등 강풍에 의한 타워크레인 등의 무너짐·넘어짐,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 등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소장 교육을 통하여 미리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유도하고, 침수, 토사붕괴 및 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건설현장을 선별하여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최근 경기 남양주 등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재해와 관련하여 크레인 안전조치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집행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장마철 감독은 고용부 근로감독관(2인 1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 전문분야 직원으로 감독반을 구성하여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감독 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를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업에서 대형사고로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면서 재해의 주 원인은 안전수칙을 무시한 작업진행과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한 하청업체에 위험작업을 전가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기본 안전수칙 준수와 하수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 강화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게시하여 건설업체 및 건설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

##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가상현실(VR) 도입한다

### 6월부터 전국 5개소 안전체험교육장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을 6월부터 전국 5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교육에 가상현실 콘텐츠를 접목하여 근로자들에게 실제 작업 현장과 같은 가상공간에서 안전사고를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도입된 가상체험 콘텐츠는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위험이 큰 사고유형 중 가상현실 체험효과가 큰 크레인작업 사고, 로봇작업 사고, 떨어짐 사고 등 3종으로 구성된다. 콘텐츠 개발은 지난해 10월 공단과 삼성안전환경연구소가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공단은 가상현실 콘텐츠개발을 총괄하고 삼성안전환경연구소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개발비용 2억 원을 지원했다. 콘텐츠는 각각 4분 분량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VR 장비와 결합하여 휴대 및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했다.

고용부와 공단은 가상현실 콘텐츠 3종을 6월부터 전국 5개소 안전체험교육장을 통해 근로자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가상현실 체험과정 소개 및 장비 활용방법, 체험 시범, 근로자 체험, 안전대책 설명 순으로 1시간 내외로 진행하며, 연간 약 24,000명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공단은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폰 기반의 콘텐츠 이외에도 올해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건설현장 가상체험 콘텐츠 1종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콘텐츠 2종을 개발해 7월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에 공개키로 하였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가상현실 콘텐츠가 교육 몰입도와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4차 산업현장을 대비해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을 확대하고, 교육방식도 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